

‘그냥’ 아니라 ‘왜’

김민서

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긴 수염이 떠오르기도 하지? 정말 그렇게 수염을 길게 기른

할아버지 한 분이 마을 길을 걸어가 있었단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

에게 다가왔어. 아아 할아버지 가슴팍까지 내려온 하얗고 긴 수염을 신기한

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물었지.

"할아버지!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은 이불 안에 넣나요, 아니면 꺼내 놓나요?"

할아버지는 "예기! 이 비릇은 음." 하고 소리치려다가 문득 자기도

궁금해졌단다. 왜냐하면 수염을 기른 채 먹심 년 동안이나 살아왔지만,

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궁금증을 지녀 본 적이 없었거든. '허허, 그리고 보니

내가 정말 수염을 꺼내 놓았나?'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알쏭달쏭하기만

했지. 결국 할아버지는 난처한 얼굴을 하고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

없었다. "글세다. 허, 참. 이 녀석, 별것 다 묻구나. 정 궁금하다면

말이다. 밤에 한번 자 보 내일 아침에 가르쳐 주마." 할아버지는 집에

돌아와 무섭게 이불자리를 펴고 누웠지 우선 이불 속에 내놓고 자야 할 것

같았어. '음지! 수염을 이불 밖으로 꺼내 놓는 게 분명해!' 할아버지는 얼른

수염을 이불로 덮으니 잠잠하고, 이불 밖으로 꺼내 놓으면 허허고 .....", 할아버지는

밤새도록 수염을 넣었다 꺼냈다 하느라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다. 물론

할아버지는 다음날 아침에 가르쳐 주겠노라고 했던 이야기의 약속도 저지 못했지.

이상한 일 아니나? 분명 그런 할아버지 자신의 수염이고, 할아버지는 몇십년 동안

하곤 배놓지 않고 잠을 잤는데 말이야. 그런데도 아이가 묻기 전까지 그 수업을  
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어.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 
 없는 노릇이었어. 물어본다고 한들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문제잖아. 정말 답답하고  
 기막힌 일이었지. 그 뒤로 할아버지는 밤마다 수업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대.  
 재미있는 이야기라? 어른들 일도 아니야. 기만! 생각해 보면, 혹시 너에게도 그런 수업이  
 있지 않아요. 아이들한테 무슨 수업이 있냐고? 아니야 그렇지 않아. 너도 누가 질문  
 을 할 때 가끔 '그냥'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잖아. 바로 그 '그냥'이라는  
 말이 너의 수업이란 거야. 아작도 잘 못하겠어? 우라는 아무 생각없이 '그냥' 자는  
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. 그냥 먹고, 그냥 자고, 그냥 노는 날 말이야. 어떤 때에는  
 봄이 와서 꽃이 피어도, 아침이 되어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도 아무런 없이  
 그냥 흐릿 흐릿 지나쳐 버리기도 하지. 새들이 어떻게 짝을 짝해 날아다니고,  
 구름이 어떻게 모였다가 흩어지는지 몇 번이나 눈여겨보았니? 남들이 흥이 나고  
 그냥 떠나고, 어른들이 세상이 그냥 했던 일은 있었니? 자기 안에 묻  
 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사람은 천천히 눈이 닫혀서 느리면  
 그냥 북을 쳐 대는 음 인형과 별다름이 없어. 아무 생각없이  
 모든 것을 순진하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야기 속 할아버지와 똑같아.  
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닌 수업을 달고 있었니까 말이야. '그냥 수업'  
 을 달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누가 "왜?" 또는 "어떻게?" 하고 물으면  
 아무도 대답도 하지 못해. 아무리 자기가 한 일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내려도  
 애써도 지나온 날들은 이미 떠나 사라져 버려서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기  
 때문이지. 어느 날인가 너한테도 누군가가 물어 묻지 몰라. 그때를 위해서라도  
 '그냥'이라는 대답이 아닌 무엇가를 준비해야겠지?